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이 사회성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지창훈 · 지삼업[†]
(부경대학교)

The Effect of Marine Sports Experiences and Activities on Sociality and Organization Culture

Chang-Hoon JEE · Sam-Up JI[†]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influence and difference of the marine sports experiences and activities on the sociality and organization culture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ity and organization culture according to the experience and activities of the marine sports to suggest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for those who experience the marine sports experiences and activities in their sociality and organization culture. To achieve this, teenagers and adults living in Busan and Gyeongnam as of March, 2013 are surveyed and 42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PC Windows Ver18.0.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gender, the men show higher levels in the difference of the sociality and organization culture and in terms of age, the difference is found. Secondly, in terms of sociality according to the marine sports experience and activities, those who experience them show higher levels. Thirdly, in terms of the influence of sociality on organization culture according to the marine sports experience and activities, activities and sociality give positive influence to organization culture in case of experienced people.

key words : Marine Sports, Sociality, Organization Cultur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사회는 인간관계가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로 여가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여가활동에 있어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유지,

사회적 유대관계 증진 등의 이유로 기존의 직접 참여하지 않고 참관하는 여가에서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여가로 전환되고, 그로 인해 각종 여가 스포츠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개인소득 증대와 함께 지리적 환경의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해양스포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Ji, Sam-up, 2003).

한편 해양스포츠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육체적·정서적 효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637 E-mail : water@pkn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지창훈의 석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임.

과를 비롯하여 자아실현, 환경과 생태, 삶의 질, 심미적 가치 등의 항목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탈 물질주의적 가치관 확립효과 등 여러 가지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는 완전스포츠라고 볼 수 있다(Ji, Sam-up, 2003).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흥미의 추구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함께 자주적이고 협력적인 성격 육성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널리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Atwater(1979)에 의하면, 훌륭하고 건강한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관계 이상으로 개인과 환경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며,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력의 개발도 아울러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과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창조적 과정이다.

Han, Young-sug(1998)은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로 태어나, 사회 속에서 여러 형태의 사회적 과정을 거쳐서 사회화된다. 또한, 사회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행동이 내재화된 것으로 사회적 관계의 의식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이며, 넓은 의미로 성격적 측면을 포함하여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통합적 측면에서 개인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로 결국 사회성은 타인과 사귀어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사회적 적응성, 대인관계의 원만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발생하고 발달해 간다(Lee, Ji-youn, 2003).

조직문화는 의사결정과 의사소통과정에 영향을 주며, 현상이나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개념화하고 적기에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무형의 인지과정을 포함하고 있다(Park, Hyun-young, 200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성에 관련한 연구는 Jo, Byeong-seok(2005), Choi, Sun-tai((2006), Kim, Kwang-sik(2006), Kwak, Shin-young(2011)등이 있으며, 조직문화에 관련한 연구로는 Shin, Jang-sik(2004), Kim, Jin-ah(2008), Baek, Pyoung-gu(2008)

등이 있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자의 사회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많다. 그러나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자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는 극히 일부가 있는 가운데 특히 조직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지금껏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야기되는 개인의 스트레스, 부족한 신체활동, 사회성결여 등으로 인한 조직(가정, 학교, 동호회, 회사 등) 문화에 부적응 현상을 적절한 신체활동으로 자연과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을 통하여 활동성과 사교성을 고양시키고 사회에 적응하며, 경직된 위계질서로 인한 창의성부족과 자율성과 사교성 등을 증대시켜 조직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이 사회성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를 구명하고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유무에 따른 사회성과 조직문화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경험자의 사회성과 조직문화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사회성, 조직문화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에 따른 사회성과 조직문화의 차이는 어떠한가?
- 3)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에 따른 사회성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 방법

가. 조사 대상

이 연구는 2013년 3월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응답자 470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 23명을 제외한 428명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The frequency	%
Sex	Male	257	60.0
	Female	171	40.0
Age	Under the Twenties	78	18.2
	The Twenties	175	40.9
	The Thirties	92	21.5
	The Forties	56	13.1
	More Than Fifty	27	6.3
Level of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ion	157	36.7
	Two year college graduates	95	22.2
	Four year university graduates	151	35.3
	Graduate or higher	25	5.8
Marine Sports Experiences and Activities	Experienced	214	50.0
	Non-Experienced	214	50.0
Total		428	1000

나.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성의 측정 도구로는 Han, Tae-ryong(1998)이 표준화 시킨 사회성 검사지를 Baek, Chang-hum(2005), Lee, Se-mi(2013)가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직문화의 측정 도구는 Koo, Yeon-won(2005), Kim, Sang-yong(2008)이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12문항을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 조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이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순화과정을 통하여 일부항목을 제거하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은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는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유값 1.0 이상, 요인적재치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Table 2>, <Table 3>참조).

<Table 2> Factor Analysis of Sociality

	Stability	Sociability	Autonomy	Activity	Commonality
b18	.802	.107	.070	-.162	.685
b20	.800	-.016	.005	.048	.643
b19	.776	.064	.084	-.071	.619
b16	.716	-.074	.007	.130	.535
b17	.638	.003	.277	.155	.507
b7	.003	.818	.194	.114	.720
b9	-.024	.797	.189	.154	.695
b10	-.071	.795	.278	.092	.723
b8	.159	.701	-.191	.089	.561
b12	.130	.072	.826	.166	.731
b13	.264	.092	.669	.125	.541
b11	-.046	.253	.619	.248	.510
b4	.036	.084	.035	.802	.652
b2	.052	.124	.247	.717	.594
b5	-.015	.181	.237	.691	.566
Eigen value	2.928	2.583	1.906	1.866	
Variance (%)	19.519	17.218	12.707	12.439	
Cronbach α	.814	.804	.650	.671	

<Table 3> Factor Analysis of Organization Culture

	Culture of Development	Culture of Agreement	Culture of Hierarchy	Commonality
a7	.826	.211	.085	.733
a6	.795	.142	.102	.606
a5	.720	.417	.054	.695
a8	.696	.221	.173	.563
a1	.124	.781	.153	.649
a3	.208	.745	.170	.628
a2	.403	.690	-.290	.639
a4	.431	.677	.109	.661
a11	.063	.785	.826	.723
a12	.006	.384	.758	.720
a10	.264	-.137	.730	.621
Eigen value	2.741	2.588	1.910	
Variance (%)	24.915	23.529	17.364	
Cronbach α	.816	.808	.704	

라. 자료처리

SPSS Ver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적인 특성에 따른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사회성, 조직문화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을 실시하였다.

넷째,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이 사회성,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모든 통계의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안정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활동성과 사교성, 자율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Difference of Sociality by Sex (Mean±S.D.)

	Male (n=257)	Female (n=171)	t-value	p
Activity	3.352±.741	3.329±.700	.326	.774
Sociability	3.435±.760	3.302±.764	1.771	.077
Autonomy	3.524±.676	3.415±.663	1.643	.101
Stability	3.211±.810	3.016±.854	2.389	.017*

* $p < .05$, ** $p < .01$, *** $p < .001$

성별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발전문화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합의문화와 위계문화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Difference of Organization Culture by Sex (Mean±S.D.)

	Male (n=257)	Female (n=171)	t-value	p
Culture of Agreement	3.559±.745	3.424±.685	1.932	.054
Culture of Development	3.434±.774	3.251±.691	2.502	.013*
Culture of Hierarchy	3.526±.706	3.588±.811	-.816	.415

* $p < .05$, ** $p < .01$, *** $p < .001$

연령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는 <Table 6>과 같다. 합의문화는 20대가 높게 나타났고($p < .001$), 발전문화는 2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위계문화는 30대가 높게 나타났다($p < .001$).

<Table 6> Difference of Organization Culture by Age

	Age	Mean±S.D.	F-value/P	Scheffe
Culture of Agreement	Under the Twenties(a)	3.147±.703	11.480/.000***	b>a
	The Twenties(b)	3.740±.665		
	The Thirties(c)	3.429±.673		
	The Forties(d)	3.517±.833		
	More Than Fifty(e)	3.250±.608		
Culture of Development	Under the Twenties(a)	3.067±.606	6.593/.000***	b>a
	The Twenties(b)	3.545±.736		
	The Thirties(c)	3.279±.760		
	The Forties(d)	3.041±.779		
	More Than Fifty(e)	3.213±.777		
Culture of Hierarchy	Under the Twenties(a)	3.226±.625	6.783/.000***	b>a c>a
	The Twenties(b)	3.651±.754		
	The Thirties(c)	3.702±.778		
	The Forties(d)	3.583±.708		
	More Than Fifty(e)	3.259±.718		

* $p < .05$, ** $p < .01$, *** $p < .001$

연령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는 <Table 7>과 같다. 활동성은 40대가 높게 나타났고($p<.010$), 자율성은 3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p<.001$), 안정성은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p<.001$). 사교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7> Difference of Sociality by Age

	Age	Mean±S.D.	F-value/P	Scheffe
Acti- vity	Under the Twenties(a)	3.132±.559	3.352/.010*	b,d>a
	The Twenties(b)	3.375±.673		
	The Thirties(c)	3.355±.857		
	The Forties(d)	3.571±.818		
	More Than Fifty(e)	3.234±.639		
Sociabi- lity	Under the Twenties(a)	3.208±.749	2.348/.054	-
	The Twenties(b)	3.452±.750		
	The Thirties(c)	3.434±.779		
	The Forties(d)	3.442±.821		
	More Than Fifty(e)	3.129±.613		
Auto-n omy	Under the Twenties(a)	3.145±.602	6.800/.000***	b,c>a
	The Twenties(b)	3.546±.676		
	The Thirties(c)	3.615±.653		
	The Forties(d)	3.458±.715		
	More Than Fifty(e)	3.604±.515		
Stabi- lity	Under the Twenties(a)	2.270±.749	7.382/.000***	b,c,d>a
	The Twenties(b)	3.152±.850		
	The Thirties(c)	3.223±.832		
	The Forties(d)	3.367±.684		
	More Than Fifty(e)	3.414±.853		

* $p<.05$, ** $p<.01$, *** $p<.001$

교육수준에 따른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의 차이는 <Table 8>과 같다.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경험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후검정 결과, 대학교졸업, 전문대졸업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비경험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사후검정 결과 고졸이하 집단과 전문대

졸업, 대학교졸업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Difference of Marine sports Experiences and Activities by Level of Education

	Level of Education	Mean±S.D.	F-value/P	Scheffe
Experi- enced	Under High School Graduates(a)	.356±.480	7.211/.000***	b,c>a
	Two Year College Graduates(b)	.568±.497		
	Four Year University Graduates(c)	.582±.494		
	Graduate School(d)	.640±.489		
	Under High School Graduates(a)	1.286±.961		
Non-E xperi- enced	Two Year College Graduates(b)	.863±.995	7.211/.000***	a>b,c
	Four Year University Graduates(c)	.834±.989		
	Graduate School(d)	.720±.979		

* $p<.05$, ** $p<.01$, *** $p<.001$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는 <Table 9>와 같다. 활동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p<.05$), 사후검정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학교졸업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후검정 결과, 전문대졸업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는 <Table 10>과 같다. 합의문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집단 간의 차이

<Table 9> Difference of Sociality by Level of Education

	Level of Education	Mean±S.D	F-value/P	Scheffe
Acti-v ity	Under High School Graduates(a)	3.229±.515	3.209/.023*	-
	Two Year College Graduates(b)	3.357±.831		
	Four Year University Graduates(c)	3.401±.789		
	Graduate School(d)	3.653±.900		
Sociabil ity	Under High School Graduates(a)	3.326±.729	1.012/.387	-
	Two Year College Graduates(b)	3.342±.798		
	Four Year University Graduates(c)	3.468±.761		
	Graduate School(d)	3.370±.851		
Auton omy	Under High School Graduates(a)	3.335±.611	4.593/.004**	c>a
	Two Year College Graduates(b)	3.491±.687		
	Four Year University Graduates(c)	3.596±.628		
	Graduate School(d)	3.653±1.020		
Stabi lity	Under High School Graduates(a)	2.955±.817	6.500/.000***	b>a
	Two Year College Graduates(b)	3.418±.830		
	Four Year University Graduates(c)	3.121±.821		
	Graduate School(d)	3.240±.730		

*p<0.05, **p<0.01, ***p<0.001

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졸업 집단과 대학교졸업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문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후검정 결과, 전문대졸업 집단과 고졸이하, 대학교졸업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위계문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 사후검정 결과, 전문대졸업 집단과 대학교졸업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Difference of Organization Culture by Level of Education

	Level of Education	Mean±S.D	F-value/P	Scheffe
Cultre of Agre-e ment	Under High School Graduates(a)	3.343±.715	6.013/.001**	b,c>a
	Two Year College Graduates(b)	3.707±.717		
	Four Year University Graduates(c)	3.569±.623		
	Graduate School(d)	3.360±1.082		
Cultre of Devel-o pment	Under High School Graduates(a)	3.227±.653	6.784/.000***	b>a,c
	Two Year College Graduates(b)	3.647±.857		
	Four Year University Graduates(c)	3.337±.638		
	Graduate School(d)	3.260±.947		
Cultre of Hiera- rchy	Under High School Graduates(a)	3.280±.670	12.765/.000***	b,c>a
	Two Year College Graduates(b)	3.778±.757		
	Four Year University Graduates(c)	3.699±.708		
	Graduate School(d)	3.493±.928		

*p<0.05, **p<0.01, ***p<0.001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에 따른 사회성과 조직문화의 차이는 <Table 11>, <Table 12>와 같다. 활동성은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났고(p<.01), 사교성은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1). 자율성은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났고(p<.001), 안정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합의문화는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났고(p<.001), 발전문화는 경험자가 비

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1$), 위계문화는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p<.05$).

<Table 11> Difference of Sociality by Marine sports Experiences and Activities (Mean±S.D.)

	Experienced (n=214)	Non-Experienced (n=214)	t-value	p
Activity	3.454±.707	3.232±.726	3.214	.001**
Sociability	3.498±.753	3.266±.758	3.182	.002**
Autonomy	3.601±.685	3.359±.638	3.771	.000***
Stability	3.207±.843	3.059±.817	1.839	.067

* $p<0.05$, ** $p<0.01$, *** $p<0.001$

<Table 12> Difference of Organization Culture by Marine sports Experiences and Activities (Mean±S.D.)

	Experienced (n=214)	Non-Experienced (n=214)	t-value	p
Culture of Agreement	3.665±.694	3.344±.719	4.701	.000***
Culture of Development	3.532±.719	3.190±.736	4.863	.000***
Culture of Hierarchy	3.643±.706	3.459±.781	5.189	.011*

* $p<0.05$, ** $p<0.01$, *** $p<0.001$

2.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에 따른 사회성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에 따른 사회성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3>, <Table 14>와 같다.

경험자의 경우 합의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활동성($\beta=.252$)과 사교성($\beta=.225$)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3.8%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활동성($\beta=.247$)과 사교성($\beta=.246$)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5.0%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자율성($\beta=.193$)과 안정성($\beta=.203$)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4%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Influence of Organization Culture to Sociality of Marine sports Experiences and Activities-1

Dep. Var.	Indep. Var.	β	t	F	R ²
Culture of Agreement	Activity	.252	3.487**	8354***	.138
	Sociability	.225	3.243**		
	Autonomy	-.013	-.163		
	Stability	-.006	-.093		
Culture of Development	Activity	.247	3.438**	9253***	.150
	Sociability	.246	3.565***		
	Autonomy	-.020	-.264		
	Stability	.041	.628		
Culture of Hierarchy	Activity	-.039	-.520	4820***	.084
	Sociability	-.121	-1.685		
	Autonomy	.193	2.440*		
	Stability	.203	2.967**		

* $p<0.05$, ** $p<0.01$, *** $p<0.001$

<Table 14> Influence of Organization Culture to Sociality of Marine sports Experiences and Activities-2

Dep. Var.	Indep. Var.	β	t	F	R ²
Culture of Agreement	Activity	.072	.989	9.165***	.149
	Sociability	.087	1.259		
	Autonomy	.289	3.946***		
	Stability	.080	1.226		
Culture of Development	Activity	.388	5.477***	13.046***	.200
	Sociability	.071	1.061		
	Autonomy	.055	.781		
	Stability	.011	.179		
Culture of Hierarchy	Activity	.083	1.135	9.443***	.153
	Sociability	.097	1.395		
	Autonomy	.310	4.249***		
	Stability	-.067	-1.022		

* $p<0.05$, ** $p<0.01$, *** $p<0.001$

비경험자의 경우 합의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율성($\beta=289$)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4.9%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활동성($\beta=388$)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0.0%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율성($\beta=193$)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5.3%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사회성, 조직문화의 차이

이 연구의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은 인구통계적 특성의 연령과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경험자에서 20대, 30대, 40대 집단이 20대미만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비경험자에서는 20대미만 집단이 20대, 30대, 40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경험자에서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비경험자는 고졸이하 집단이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iddick(1985)는 개인의 성,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이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Kim, Hyeong-yong(2004)은 레저스포츠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의 결과 역시 연령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구통계적 특성은 차이가 있음이 부동의 사실로 확인 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사회성 차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hin, Seung-min(2006), Kim, Seon-ja(2007)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성향이 이 결과를 나타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성에서 남성이 높게 나타난 Baek, Chang-hum(2005)과는 일부 일치하지만, 반면 Bang, Min-ho(2009)와 Lee, Se-mi(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은 회사나 가족 등의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사회성 차이는 활동성, 자율성, 안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자율성은 20대, 30대, 50대 이상의 집단이 20대미만의 집단보다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성에서 40대가 20대미만의 집단보다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정성은 20대미만의 집단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집단보다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Lim, Moon-sub(2011)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통계적(연령) 특성에 따른 사회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Jin, Kwang-ho(2010), Jo, Byeong-seok(2005)의 경우 학년(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의 결과 역시 일치하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성차이는 활동성, 자율성, 안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자율성에서 대학교졸업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만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나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간관계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대한 선행연구는 초·중·고·대학생의 개별적 사회성 연구는 있으나, 특히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성 차이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말부터 주로 경영학에서 다루게 되었으나 급속한 시장변화와 기술혁신 사회의 변화와 함께 조직의 구조나 관리수단의 한계성이 인식됨에 따라 조직문화의 연구의 필요성이 고조되었다(Bak, Min-saeng, 2000). Reimann & Weiner(1988) Deal & Kennedy(1982)은

조직문화유형이 측정(유형결정 요인, 문화 또는 조직)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는 발전문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지훈(2012)의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조직문화 차이는 합의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합의문화의 경우 20대 집단이 20대미만, 30대, 40대 집단보다 높았으며, 발전문화는 20대 집단이 20대미만의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위계문화는 20대, 30대 집단이 20대미만의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는 합의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합의문화는 전문대졸업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발전문화는 전문대졸업 집단이 고졸이하, 대학교졸업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계문화는 전문대졸업, 대학교졸업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2.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에 따른 사회성, 조직문화의 차이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에 따른 사회성 차이는 활동성, 사교성, 자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경험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Lee, Hyo-young(2004), Rhee, So-hee(2006), Bang, Min-ho(2009)의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해양스포츠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협동, 자연에 대한 대응이 바탕이 되는 운동이므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는 합의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사회성, 조직문화의 관계

스포츠 활동 참가가 사회성 발달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Han, Tae-ryong, 1998), 중등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사회성 발달의 관계(Kim, Youn-soo, 2001), 청소년의 체육 활동과 사회성 발달의 관계(Kim, Dong-heon, 2000) 등의 연구에서 스포츠·체육활동이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고 해양스포츠 체험과 관련해서는 Yum, Lee-kyung(2008)의 연구에서 해양스포츠 체험이 참가자 비참가자에 비해서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경험자의 사회성과 조직문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성은 조직문화의 하위요인 중 발전문화와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합의문화, 위계문화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는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과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성, 자율성, 안정성의 순이며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비경험자의 사회성은 조직문화의 하위요인 중 합의문화에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직문화와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이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성, 사교성, 안정성 순이며,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이 사회성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를 구명하고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유무에 따른 사회성과 조직문화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 경험자의 사회성과 조직문화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결론

첫째, 성별에 따른 사회성과 조직문화의 차이는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사회성과 조직문화는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에 따른 사회성은 경험자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의 하위요인인 활동성, 사교성, 자율성, 안정성 모두 경험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성을 제외한 활동성, 사교성, 자율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에 따른 조직문화는 경험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직문화의 하위요인인 합의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는 경험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에 따른 사회성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경험자의 경우 사회성의 하위요인인 활동성과 사교성이 조직문화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의 하위요인이 조직문화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합의문화는 활동성과 사교성이 양(+)의 영향을 미치며, 발전문화에는 활동성과 사교성이 양(+)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위계문화에는 자율성과 안정성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험자의 경우 사회성의 하위요인인 활동성과 자율성이 조직문화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의 하위요인이 조직문화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합의문화는 자율성이 양(+)의 영향을 미치며, 발전문화에는 활동성이 양(+)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위계문화에는 자율성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과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을 성별·연령·교·육수준에 따라 사회성과 조직문화를 차별화 시킬 수 있도록 해양스포츠 종목 및 정책, 관련시설이 필요하다.

둘째, 20대 이하에서 사회성과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이 타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났음에 초·중·고등학생의 사회성과 조직문화 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국립·시립·도립해양스포츠청소년 수련원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

셋째,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은 비경험자 보다 경험자가 모든 연령대에서 사회성을 높이고 조직문화에 기여하므로 누구나 쉽게 해양스포츠 체험 및 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설(마리나, 보트계류장, 해양스포츠센터 등)확충 및 종목별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

- Atwater, E(1979). Psychology of adjustment: Personal growth in a Changing Worl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 Baek, Chang-hum(2005). The Effect of Social Development on Physical Education of Specialty and Aptitude Educational Participation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Chung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Baek, Pyoung-gu(2008).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nagerial Coaching Behaviors, Chung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Bak, Min-saeng(2000). Kores's Corporate Culture Development, Muyok.
- Bang, Min-ho(2009). Effects on Middle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and Sociality Through Participation of Physical Programs after School, Sog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Choi, Sun-tai(2006) A Effect between sports participation and the social develop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 Chosu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Deal, T. E. & Kennedy, A. A.(1982), "Corporate culture, the rites and rituals of corporate- life, reading", Mass :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 Denison, D. R, & Spreizer, G, M.(1991).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A Competing Values Approach. Research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1-21
- Han, Tae-ryong(1998). The relationships between sport participation and the social development among youth, Seoul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Han, Young-sug(1998). Effects of the Self-Expression Training on Passive Children's Social Behavior, Dankook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Han, Young-sug(1998). Effects of the self-expression training on passive children's social behavior, Dankook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Hofstede, G., Neuijen, B., Ohayv, D. D. & Sanders, G.(1990), "Measuring Organizational Cultures: A A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y across Twenty Cas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
- Hurlock E. B(1978). Child Development. Tokyo: Mcbrewh Hill.
- Jeong, Seong-kuk(2012). The Effect of Elementary Student's Taekwondo Training on the Personality and the Sociality, Kyunghee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Ji, Sam-up(2003). The analysis of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for marine-sports popularization, The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42(6), 241-257
- Ji, Sam-up(2011) The Theory of Marine Sports, dkbooks, Seoul.
- Jin, Kwang-ho(2010). Research about the different social development of youths according to their participation in school sports clubs, Kyunghee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Jo, Byeong-seok(2005). The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on development of sociality, Sungkyunkwa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ang, Heung-gu(2001). A study on the quality of medical social work influenced by organizational culture of hospital, Yonsei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Kim, Dong-heon(2000). Effects of Sport Involvement on Development of Sociability among Adolescents, Suwo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im, Eun-jeong(2009).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lf-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Chung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im, Ho-jeong(2002). A Comparison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Public Agencies and Private Firm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3) 87-105
- Kim, Hyeong-yong(2004).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motivations and limitations to attend leisure sports and the fun of the spor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Kim, Jin-ah(2008). Organizational Culture and Effectiveness of Child Care Centers Perceived by Child Care Practitioners, Dongduk Womem's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Kim, Jun-hyung(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Squash Rackets of Housewives and Sociality, Suwo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im, Kwang-sik(2006). Sports activity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tudent on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bility, Suwo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im, Kyung-hee(2003). Development of School Counseling Program for the Third Grade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Chung-Buk Nar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im, Sang-yong(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Yongin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Kim, Seon-ja(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ity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onkw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im, Seon-sook(2006).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Improvement of Autonomy and Sociality for Mentally Retarded Middle School Student, Daejeo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im, Youn-soo(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ity Development and Sports participation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Kookmi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oo, Yeon-won(2005). A Study on the Effects of

-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Yongin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Kuk, Su-kyung(2005). The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on Sociality and Self-Concept of Childre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wak, Shin-young(2011). An Effect of Physical Self-Concept of the Participants in Sports Activity on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Kyunghee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Lee, Dong-gi(2012).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Business Strategy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Yongin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Lee, Hyo-young(2004). (The) effects between sociality development and physical education of the speciality and aptitude education participation of middle school, Kookmi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Lee, Ji-hoon(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Structure & Culture up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Konkuk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Lee, Ji-young(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of Adolescent Voluntary Service for Enhancing Sociality : Focusing on the Voluntary Activities for the In-Home Old, Ewha Womans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Lee, Ji-young(200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of Adolescent Voluntary Service for Enhancing Sociality : Focusing on the Voluntary Activities for the In-Home Old, Ewha Womans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Lee, Se-mi(2013). Relationship between Sociality, School Adaptation and School Violence Behavior of School Sports Club Activity Participants in Middle School, Konkuk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Lim, Chang-hui(2007). Organizational Behavior, 7 Hakhyunsa Gyeonggido
- Lim, Moon-sub(2011). (A) study on leisure time satisfaction and sociality,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of marathon club members, Kookmi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Martine, J.(2002). Organizational Culture: Mapping the Terrai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Oh, Kyong-jin(2000). The Effects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Esteem and Sociability, Korea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Park, Hyun-young(2004). (A) Study on the Impacts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on the Labor Rela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Typ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Park, Young-howan(2006). (The) Effects of Leadership Types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Chung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Reimann, B. C. & Weiner, Y.(1988), "Corporate culture : Avoiding the elitist trap", Business Horizons, March-Apr.
- Rhee, So-hee(2006). The Influence of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Sport Activities on their School and General Socialit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Riddick, C.C.(1985). Life satisfaction determinants of older males and female. Leisure Science, 7, 47, 63
- Ryu, Byung-gon(2011).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ankook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Shin, Jang-sik(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and Teacher's Morale, Chosu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Shin, Seung-min(2006). The Influence of Social Development regarding Sports Particip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onkuk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Sin, Un-hwa(2005).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s and Job Satisfaction of the Social Workers : Focusing on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in Seoul, Catholic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 Won, Sin-yeong(2012). Sports Sociology, 174 dkbooks Seoul.
- Yum, Lee-kyung(2008).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in marine sports activities to their sociality,

Chungang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Zammuto, R. & Krakower, J.(1991).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of Organizational Culture.
Research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Vol.5.

-
- 논문접수일 : 2013년 08월 30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9월 30일
2차 - 2013년 10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04일